죽음으로 음욕을 끊어 계를 지키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36)

도를 얻지 못한 사미의 계율 수호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 아는 한 비구가 있었다. 이때 안타국에는 삼보를 공경하고 믿는 한 우바새가 있었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 비구의 공양을 대기로 하고 날마다 공양을 보내고 있었다.

마침 그 나라에 또 어느 한 장자는 사내아이를 낳아서 출가를 시키려고 좋은 스승을 구하다가 그 비구에게로 가서 말했다.

"나는 이 아들을 출가시키려 합니다. 대덕께서 제도해 주십시오."

그때 비구가 도안(道眼)으로 잘 살펴보니, 이 아이는 출가하면 깨끗한 계율을 잘 지니겠으므로 사미로 삼았다. 이때 우바새에게 사이좋은 한 거사가 있었는데, 다음날 손님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게 되어 다들 모이게 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에 우바새가 말했다.

"이제 모임에 나가야겠는데, 누가 남아서 집을 지키겠느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부모님께서는 여러 종들을 데리고 가셔서 청에 응하십시오, 제가 남아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온 집안이 다 잔치에 갔다. 딸은 문을 닫고 혼자 집 안에 있었는데, 그날 우바새는 바빠서 그만 잊어버리고 비구의 밥을 보내지 않았다.

그때 존자는 생각했다.

'밥 때가 지났구나. 속인이라 일이 많은 게로구나.'

비구는 사미를 보내어 가서 음식을 가져오게 했다. 사미가 우바새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자, 그 딸이 물었다.

"누구십니까?"

"저는 사미인데, 스님을 위하여 밥을 가지로 왔습니다."

그러자 우바새의 딸이 이내 문을 열어주었다. 이 여인은 단정하고 용모가 빼어났으며, 나이는 열여섯이었다. 여인은 사미가 마음에 들어 음욕이 일기 시작했다. 여인은 사미 앞에서 갖가지 요염을 부리면서 음욕의 모습을 심하게 나타내었다. 사미는 그것을 보고 생각했다.

'이 여인이 음욕에 끄달려서 나의 깨끗한 행을 깨뜨리려 하는 것은 아닐까?'

사미가 굳게 점잖은 언행을 지니면서 안색조차 변하지 않자, 여인은 이내 온몸을 땅에 던지고 사미에게 말했다.

"제가 항상 원하던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의 이 집안의 값진 보물 창고는 마치 비사문 천궁의 보배 광 같으나 주인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만 생각을 바꾸어서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사미는 생각했다.

'내가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계율을 깨뜨리지 않겠다. 옛날 어느 비구는 음녀의 집에 가게 되자, 차라리 불구덩이에 몸을 던졌을지언정 음행은 범하지 않았다. 또 여러 비구들이 도둑에게 도둑질을 당하고 풀 가지에 매여 있으면서 바람이 차고 햇볕이 따갑고 온갖 벌레들이 깨물어도, 계율을 수호하려는 생각으로 풀을 끊고 떠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저 바다에서 배가 파괴되자 하좌 비구는 계율을 수호하려고 판자를 상좌에게 주고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계율을 능히 지켜낸 분들이다. 나도 부처님의 제자인데 왜 지키지 못한단 말인가? 세존께서는 그들만의 스승이요, 나의 스승이 아니란 말인가?'

사미는 여인에게 말했다.

"그만 문을 닫으시오. 나는 방에 들어가 내 할 일을 해야겠소. 그리고나서 그대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내 문을 닫았다. 사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칼을 하나 찾아 놓았다. 몸에 입었던 옷을 다 벗어서 횃대 위에 걸어두고 합장하고 무릎을 꿇고 구시나성의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곳을 향해 서원을 세웠다.

'제가 이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을 버리지 않고 계율도 버리지 않으면서 바르게 계율을 지니기 위하여 이 생명을 버립니다. 원하건대 태어날 적마다 출가하고 깨끗한 행으로 번뇌가 다하여 도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목을 베어 죽었다. 이때 여인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지게문에 나아가 살펴보았다. 그가 이미 죽어서 본래의 모습을 잃었음을 보자, 음욕심은 바로 없어지고 부끄러움과 괴로움으로 슬피 부르짖으며 기절했다.

그의 아버지가 모임에서 돌아와 딸의 모습을 보고 어찌 된 영문인지 물었다. 딸이 자세하게 사실대로 대답하므로 아버지는 이내 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사미의 몸이 온통 피로 더럽혀져서 붉기가 마치 전단향과 같았기에 우바새는 예배하고 찬탄했다.

"부처님 계율을 수호하고 지키려고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때 그 나라 법에는 만약 어떤 사문이 속인의 집에서 죽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했으므로, 우바새는 금전 천 냥을 싣고 왕궁으로 가서 말했다.

"대왕이시여, 저에게 벌을 받을 일이 있으니 이것을 왕에게 드려야 합니다."

왕은 말했다.

"당신은 삼보를 공경하며 언행에 어김이 없는 사람이오. 당신에게 대체 무슨 허물이 있기에 벌금을 낸다는 것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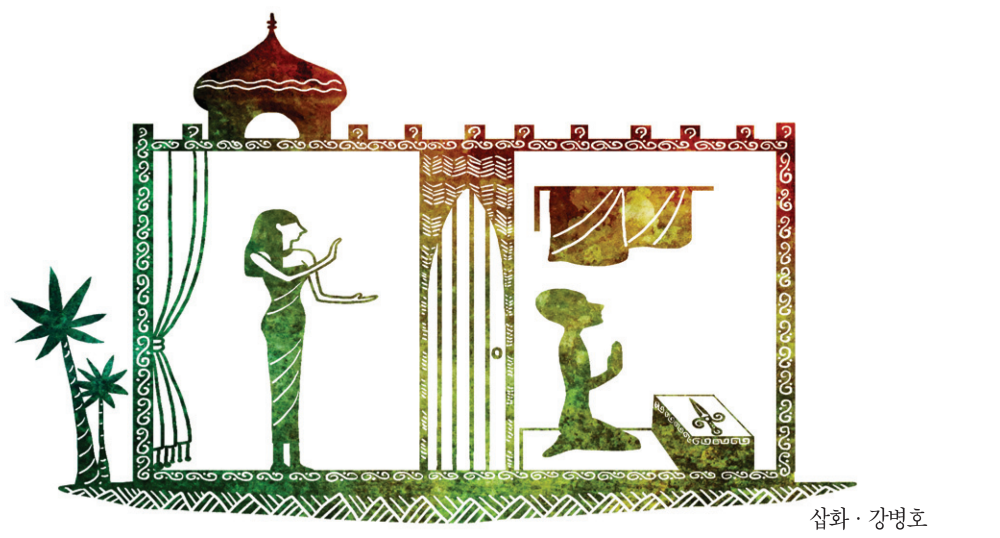
우바새가 위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의 딸의 잘못을 책하고 사미를 찬탄하자, 왕은 듣고 말했다.

"사미가 계율을 지키면서 스스로가 생명을 버린 것이요, 당신에게는 허물이 없으니, 다시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나는 지금 당신의 집에 가서 사미에게 공양하고 싶습니다."

왕은 우바새의 집으로 가서 사미를 보고 나아가 예배하고, 갖가지 보배로써 높은 수레를 꾸리고는 죽은 사미를 싣고 평탄한 땅으로 가서 많은 향나무를 쌓아 다비하고 공양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잘 꾸며 잘 보이는 곳에 세워놓고 그때 모인 대중들에게 말했다.

"이 여인이 아주 잘 생기고 이렇게 아름답다. 아직 욕심을 여의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구인들 음심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 사미는 아직 도를 얻지 못했는지라 생사를 오가는 몸으로써 이와 같이 계율을 받들며 목숨을 버렸으니 매우 기특하고 희유하다."

왕은 이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스승을 청하여 널리 대중들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설하게 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듣고서 출가하려 하는 이도 있었고, 위없는 보리의 마음을 내는 이도 있었다. (〈현우경〉 제7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삽화 · 강병호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㊱

부처님 품 속에서 느끼는 행복

원력과 신심으로

내가 다니고 있는 절에서는 매년 백중 백일 전부터 백중까지 백일동안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는 기도를 올린다. 그리고 회향 후 영가들의 위폐를 모시고 방생을 떠난다. 올 해는 여수 향일암과 흥국사로 가기로 했다. 도중에 바닷가에서 용왕제를 올리고 위폐는 태우고 극락왕생을 축원했다. 무더위가 한 풀 꺾일 만도 한데 여전히 폭염이 이어진다. 그래도 오늘은 비가 좀 올 기세다. 부산은 비 구경한지가 너무 오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가는 도중 비가 내렸다. 우린 박수로 비를 맞이했다. 기도 덕택 인 것 같았다. 버스 네 대로 나눠 탔다. 세 대는 우리 스님들이 각각 나누어 타고 나머지 한 대는 내가 맡아 가게 되었다. 우리 신도들 중엔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아 오늘도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되길 기원하며 길을 떠났다. 여수라면 얼마 전 세계 박람회를 개최했던 곳으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 특히 이순신 다리를 건널 때는 우리 토목 기술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드디어 향일암에 도착했다. 아랫마을에서 내려 가파른 길을 따라 올라야 했는데 어르신들이 걱정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분도 뒤처지지 않고 빠짐없이 모두 법당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정성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깊은 신심을 읽을 수 있었다.

지극한 신심…모든 장애 극복
뿌리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

공양 후 다시 내려올 때도 부처님을 뵙고 오는 길이라서 그런지 어르신들의 모습에는 힘든 기색이 없었다.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지극한 신심은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향일암을 떠나 다시 흥국사로 향했다. 흥국사는 보물이 9개나 있는 유서 깊은 절이다. 고려때 지은 원통전은 1624년(인조 2년) 계특 대사가 다시 지은 당우로 석가삼존불을 모시고 있는 절의 중심법당이다. 법당에 모신 부처님은 당시 지역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개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목불로서 조각수법도 매우 뛰어나다. 몸채의 균형과 변화에서 17세기 전반에는 이와 같은 크기의 보살상을 동반한 삼존불이 드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지 스님이 절의 유래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후불탱화는 1693년 숙종 19년에 왕의 만수무강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여 화가였던 의천과 천신 두 스님이 그렸다고 한다. 보물로는 대웅전, 후불탱화, 목조석가여래 삼존상, 홍교, 목조지장 삼존상(시왕상 일괄), 노사나불 괘불탱화, 수월관음도, 십육나한, 동종이며,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로 원통전, 팔상전, 흥국사 삼장 보살도, 제석도 등이 있다. 많은 보물을 지니고 있어서인지 흥국사는 다른 절 보다 더욱 고풍스럽게 느껴졌다. 단청을 하지 않은 나무결이며, 높게 지은 법당이며,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니 선인들의 불심 앞에 고개가 숙여졌다. 소중한 이 보물들을 잘 지켜야 함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앞서 들렀던 향일암도 전국의 신도님들의 정성으로 아름답고도 화려한 금빛 절을 이루어 놓았지만 몇 년 전 타 종교인의 광신으로 도량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한 아픈 상처가 있는 곳이다. 향일암의 아픈 기억을 생각하면 도량의 소중함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말이지 싶었다. 새로이 짓는 것보다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유물들을 잘 지켜야 할 일이다.

이렇게 사찰을 다니다 보면 사찰에서 보고 느끼는 불심들이 있다. 그런 불심을 안고 돌아오는 길은 마음이 가볍고 뿌듯하다. 돌아오는 차중에서 도반들과 부처님 말씀으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어디를 가도 우리는 부처님의 품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기에 그 누구도 외롭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죽음 앞에서의 개종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48가구의 반장을 맡고 있다. 반장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앞집에 살던 젊은 부인이 반장을 했었는데, 이사를 가면서 장부를 내게 맡기고 간 뒤부터 얼떨결에 맡게 됐다.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그때만 해도 잠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하게 되었다.

오늘은 오래도록 친하게 지내오던 아랫집 아저씨가 위암을 앓아오다 운명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웃사람들과 병원 영안실로 문상을 갔었다. 그런데 영전에 향을 올리다 발견한 영가의 세례명(베드로)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원래는 불자였고 아내는 어느 사찰 다도회 사범으로 열심히 활동해오던 집안이었다. 이곳 성모병원으로 입원하면서 타종교인들로부터 헌신적인 간병을 받은 것 같다.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화되어 그들에게 교화된 듯했다. 그러다보니 장례식도 천주교식으로 하게 되었다고 했다. 불자인 나로서는 섭섭함을 감당할 수 없었다. 온 가족이 시간 맞춰 미사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이내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이럴 수가! 내가 운전하고 갈 때, 지금쯤 어느 스님께서 오셔서 목탁을 치고 염불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 했는데…. 오래도록 불자로 살아온 집이었기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나는 그래도 "49재는 어느 절에서 할 거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나의 기대를 저버렸다. 49재도 지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고인의 뜻대로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들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 불교에서도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평생 부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말년에 죽음 앞에서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다.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탄생!**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음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엣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플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컨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